“내재된 불성 보라”… ‘眞娥 찾기’를 그리다

‘불교로 읽는 古典’ 시즌 2

⑧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

토마스 만은 1875년 태어나 1955년에 세상을 떠났다. 세계 1, 2차 대전을 다 겪은 전쟁 세대이기도 하다. 독일의 뤼베크 출신인 토마스 만은 어려서부터 작가를 꿈꾸었다.

문학의 길에 세 분의 스승을 만났는데 쇼펜하우어, 니체, 바그너이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를 읽었던 독서 체험은 일생에 두 번 오지 않는 영적체험으로 꼽고 있다.

첫 장편 소설인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을 출간했는데 성공적이었다. 삶에 대해 염세주의적이었던 토마스 만은 삶을 긍정하는 괴테를 존경하고 좋아했다. 토마스 만은 괴테의 작품을 차용하여 〈바이마르의 로데〉, 〈파우스트 박사〉 등을 출간했다.

1933년 1월에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되자 체포되지 않으려고 여행을 떠났다. 그 후 망명자가 되어 스위스, 체코, 미국을 떠돌았다.

지옥세계를 그린 ‘마의 산’

장편소설 〈마의 산〉은 12년이나 걸려 완성한 작품으로 20세기 유럽의 철학, 문학, 사상을 집대성한 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마의 산〉을 출간하고 나서 5년 후 1929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마의 산’이란,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폐결핵 요양원 베르크호프를 일컫는 것으로 죽음의 세계요 지옥세계를 나타낸다. 요양원장인 베렌스 고문관은 환자들의 눈을 속여 요양기간을 늘려가는 염라대왕이다. 이 소설의 중심 주제는 삶과 죽음, 존재와 시간이다. 주인공인 23세의 청년 한스 카스토르프가 사촌 요아힘을 문병하러 다보스 요양원에 왔다가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요양원에서 완치되어 마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인문학자이자 문필가인 세템브리니는 죽음에 매혹된 한스 카스토르프의 스승으로, 이곳 지옥세계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생의 철학을 가르쳐 준다. 세템브리니는 한스에게 “망자들이 취생몽사(醉生夢死)하는 이곳 심연으로 내려오시다니요. 우리는 깊은 심연에 빠진 존재들입니다”라고 말한다.

현재는 영원한 지금이며 찰나

주인공 한스는 별다른 변화 없이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요양원의 일상을 접하면서 시간에 대해 많은 사색을 하게 된다. 한스는 시간에 대해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켜보고 있으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거야. 시간에는 결코 사실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시간이란 길다고 생각하면 긴 거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거야.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의 시간 단위는 단지 약속에 불과한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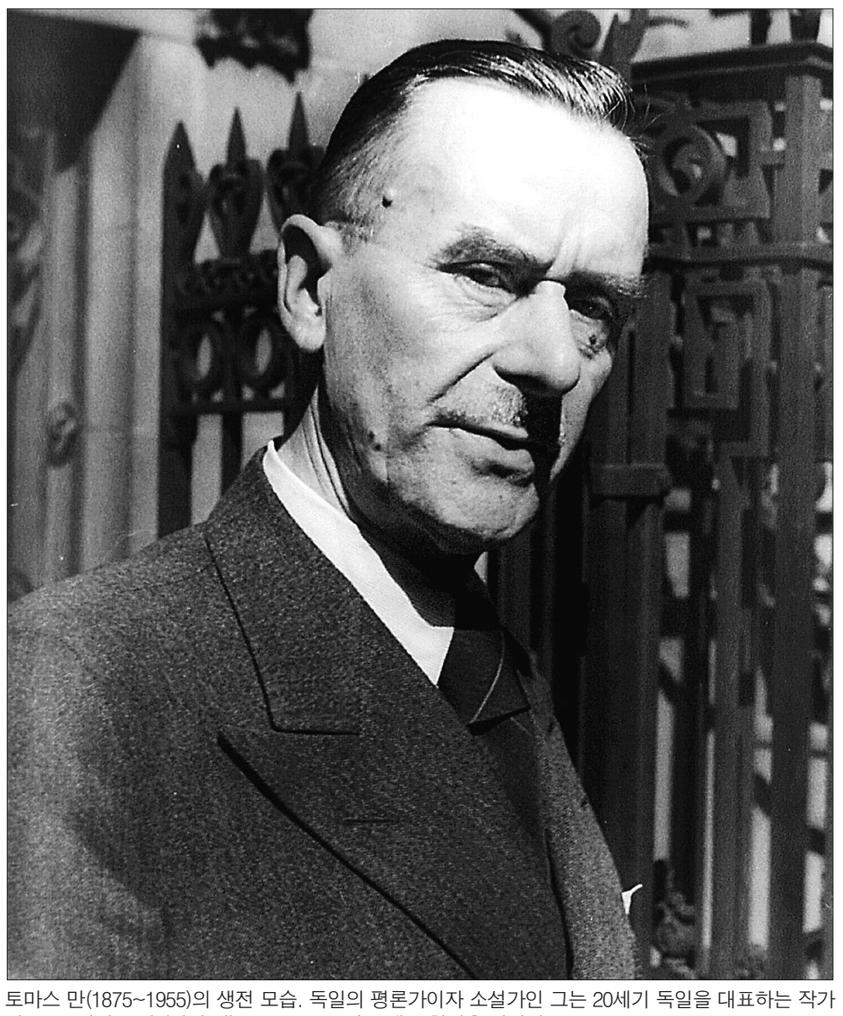
시간을 인식하는 식(識)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간은 기분에 따라 변한다.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식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상과 사물을 지어내고, 대상과 그 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한스 도스카르프는 바로 토마스 만 자신이다. 토마스만은 한스 도스카르프의 입을 빌려 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한다. 한스는 “시간은 불가사의한 것이며, 실체가 없으면서 전능한 것이며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물체와 그것의 운동과 결부되고 혼합된 하나의 운동이다. 시간은 활동적이고 동사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은 변화를 낳는다”라고 말한다.

시간은 사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삼법인 중 하나인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이 변화요, 운동이다.

한스는 “시간이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고 인과관계 속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시간의 경과는 우리의 감각 기관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영원한 현재”

12년 집필한 大作… 노벨상 수상도
스위스 요양원서 겪는 이야기 그려
소설 內 시간관·인식론 불교 맞닿아
“지금 현실에서 나를 보나” 메시지



토마스 만(1875~1955)의 생전 모습. 독일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그는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다. 그는 장편 소설 〈마의 산〉 등으로 1929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토마스만의 불교적인 시간관념을 알 수 있다.

사물뿐만 아니라 시간의 본질 또한 영원한 현재이다. 시간은 과거로 인하여 현재가 생기고 현재는 미래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니 현재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다. 시간은 존재 혹은 법이 흐르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시간은 바로 지금 존재하는 곳에 머물러 있다.

시간의 사색에 빠져 있는 한스에게 세템브리니는 “오늘을 즐겨라! 시간이란 이용하도록 인간에게 빌려준 신들의 선물”이라고 경쾌한 답을 내려준다.

극단을 피하고 조화를 이루다

토마스 만은 역설적인 표현 방법인 아이러니(irony)를 소설적 기법에 도입하였다. 선과 악의 대립, 삶과 정신의 대립 등 이원적 대립을 아이러니를 통해 조화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토마스 만의 문학기법이기도 하다. 양 극단을 피하여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교의 중도와 맞닿아 있다.

소설의 후반부에는 일원론자인 세템브리니와 이원론자이자 예수교의 사제였던 나프타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세템브리니는 토마스 만의 또 다른 분신으로 “인간의 인격은 두 개의 적대적인 원칙이 대립하는 싸움터가 아니라 조화롭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곳”이라고 말한다.

세템브리니는 “육체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고도 온전하게 유지한다. 인체는 신이 머무는 참된 신전”이라고 표현한다. 죽음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나프타를 향해 세템브리니는 타인의 죽음체험은 결국 삶의 체험이 되어야만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죽음은 두렵거나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명백하고 이성적이며 생리적으로 필연적인 환영할 만한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이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삶을 침해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에 모범적인 화장터나 납골당인 죽음의 전당 말고도 삶의 전당도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건축, 회화, 음악 및 문학이 서로 힘을 합쳐 유족의 마음을 죽음의 체험이나 무익한 비애며 무기력한 탄식으로부터 이 세상의 삶의 환희로 돌리려는 겁니다.”

세템브리니는 불이(不二)사상을 말하고 있다. 불교는 상대적인 이원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둘이 아닌 법을 가르친다. 삶과 죽음이 둘 아니며,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며, 번뇌와 지혜가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죽음에 매혹된 한스가 뜻밖에도 아름다운 여인 클라브디아 쇼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한스는 육체, 사랑, 죽음 이 셋은 서로 다르지 않다면서 육체에 대해 탁견을 쏟아낸다.

“육체는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피부를 붉게 물들이기도 해. 하지만 또한 육체는 숭배할만한 위대한 영화(榮華)이고 유기 생명의 기적과도 같은 형상이며 형태와 아름다움의 불가사의한 신성함이야. 이 매혹적인 유기체의 아름다움은 화구(畵具)나 돌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패성 물질로 되어 있고 생명과 부패라는 열을 내는 비밀로 가득 차 있어.”

불이법을 말한 유마거사는 “육신이 무상하다고 설하여 육신에 대한 탐착을 없애는 것은 좋지만 미워하거나 버리라고는 말하지 말라. 육신에 괴로움이 있다고 설할지라도 열반을 즐기라고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육신이 무상하지만 육신이 있어야 생사를 여의고 해탈의 길로 갈 수 있으니 미워할 것도 버릴 것도 아니다.

죽음은 성스러운 조건

요양원에서는 환자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지만 식탁의 빈자리가 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할수록 한스는 ‘죽음의 모험은 삶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모험이 없으면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죽음을 삶의 모험쯤으로 생각하는 한스에게 세템브리니는 “죽음을 바라보는 유일하게 건강하고 고귀한 방식은 죽음을 삶의 일부분이자 부속물, 성스러운 조건으로 파악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죽음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흥분시키는 것도 아니며, 또 죽음에 도취해서도 안 된다. 그냥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고귀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세템브리니는 “죽음은 삶의 요람이자 갱신의 모태로서 존경할만한 것이다. 삶과 떼어놓고 보면 죽음은 유령이자 역겨운 몰골, 그리고 더욱 고약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을 보면 토마스 만은 죽음은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한 형태라는 불교의 생사관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현재는 찰나생 찰나멸이기에 시간은 곧 과거로 흘러가버린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영원한 현재 뿐이다. 우리는 현재에만 살아있는 것이고, 과거에 살 수도 미래에 살 수도 없다. 현재에만 머무는 삶에 죽음이 찾아올 수는 없는 것이다.

죽음은 시간의 바깥 세계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한스의 생각에 세템브리니는 “내세는 현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세에 미래세와 과거세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의 순환고리처럼 현세는 과거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내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마의 산〉에서는 숫자 ‘7’이 일관된 흐름으로 소설을 관통하고 있다. 소설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환자들이 체온계를 무는 시간도 7분이며, 요양원의 식당에는 일곱 개의 식탁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 한스는 7년간 요양원에 머문다. 불교에서는 숫자 7은 생명의 변화와 성장을 나타내는 시간 리듬이고, 숫자 7을 거듭한 49일은 생명의 변화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중유(中有)에 머무는 기간을 숫자 7에 7을 곱하여 49일로 보았다.

내면적 광명과 행복을 향하여

세템브리니는 “죽음에 매혹되는 것은 삶에 배치되는 음란한 욕망에 불과하다”면서 한스에게 생의 철학 그리고 삶의 환희를 가르쳐 준다.

“인간은 죽음에 종속시키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두뇌의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보다 고귀한 존재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삶에 종속시키기에는 참으로 고귀한 정신의 경건함을 가졌기 때문에 삶보다도 고귀하다.”

세템브리니는 탄생과 죽음은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보라고 한다. 그 누구라도 불성을 훼손할 수는 없으며, 불성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다.

토마스 만은 “인류는 암흑, 공포, 증오에서 출발했지만 내면적 광명과 선과 행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빛나는 도정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 또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한스는 친한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결코 죽음이 삶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나서야 마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되고 해방된 것을 알았다.



문윤정(수필가, 여행작가)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 가 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011-9049-2848 야간전화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227027-51-090791(예금주:남궁성균) • 제조원:구암식품 • 식품제조업:대구 북 제00619호